

나주 혁신산단 협력사들 인력난 '심각'

149개 공장 가동...분양률 97%에도 가동률은 31% 불과 학자금 지원·정규직 전환 등 파격 조건에도 지원자 적어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의 배후 산단 역할을 맡고 있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 기업(혁신산단)에 입주한 협력사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내걸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현재 나주 혁신산단에는 149개의 공장이 가동중이며, 42개의 공장이 추가 입주계약을 마쳤다. 나주 혁신산단은 빛가람혁신

도시로 분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2015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 및 클러스터와 연계된 기업 유치 위해 나주시 왕곡면 일대 178만 5120㎡ 부지에 조성됐다.

이어 지난 2021년 3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분양률 95%를 기록했고, 올 8월 기준 분양률은 97%에 달하고 있다.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나주 혁신산단 공장 가동률은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단 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인구직 노력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공장을 분양받은 기업들은 실질적인 업무 대신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의 대규모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등에 힘을 실어 에너지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할 나주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채용 미달, 이직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나주시가 종합한 고용현황에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 기업 149개의 중위(전체의 중간) 고용 수준이 10~15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조차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입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구인 공고를 올리는가 하면 전남도와 연계해 일자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거적으로 나주시와 한전,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을 달라는 건의사항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일자리종합센터에 따르면 올 1~8월 나주 혁신산단 내 중소기업이 접수한 구인상담만 8개 직종, 51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6건 이상의 구인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전남 일자리종합센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제 2차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프로그램을 열고, 나주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프

로그래에 참여한 기업들은 숙식제공 및 학자금 지원, 정규직 전환 등의 비교적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채용을 위한 정원 수 20명 가운데 4명만 채용되는데 그쳤다.

고급 인력인 연구직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반적인 고학력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직장을 찾아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 등지로 향하기 때문이다.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한 A기업 관계자는 "많은 입주 기업들이 상시 구인구직을 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연구인력의 경우 전담이 목표인 '에너지도시'의 주축이지만, 일정 경력을 쌓으면 수도권 또는 대규모 산단이 있는 타 도시로 떠나버리기 일쑤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무안 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27일 본사 로비에서 ‘무안 김 홍보 캠페인’을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전KDN,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체계 구축...재난·화재 대응

침입자·침수 등 상시 확인

한전KDN은 27일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전 지하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감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전 전력구 및 공동구의 화재 등 재난방지와 재해 초동대응을 위해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전 전력구와 공동구는 지하 공간에서 전력 배전에 필요한 다회선의 케이블 등을 수용하고, 케이블 간 접속 공간을 제공하는 설비를 가

리킨다.

배전 전력구 케이블 화재는 공중전선 단선 등으로 발생하는 산발, 저압설비 감전 등과 함께 배전 설비 6대 재해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력 케이블 간 접속점과 접속함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KDN은 지하 은폐시설물인 전력구의 특성상 보안·안전성을 위한 상시 출입 제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 전력구 화재 감지부터 침입자 감시, 온도 및 침수 상시 확인이 가능한 종합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한전KDN의 종합감시시스템은 현재 지난

2010년 한전 남서울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409개 전력구와 11개 공동구 등 전국 배전 전력구의 80%에 설치됐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감시시스템은 화재, 침수, 출입자 등 환경감시와 케이블 접속점, 국부 소화장치에 대한 설비 감시를 주요 기능으로, 용도를 확장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상시 감시를 통해 케이블 이상 감지,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 등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안정된 배전 전력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고객 참여 부하 차단제로 650MW 확보”

1kW 당 1320원 운영보상금 지급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 계통 고장으로 주파수가 하락하는 등 전력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직접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실시한다.

한전은 27일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현재 650MW 규모의 고객 44곳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 위기 상황에서 한전이 사전에 계약된 고객들의 전력 공급을 즉시 차단해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가입의 주요 고객은 제지·철강·2차전지 업종의 사업장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현재 82%에 달해 대규모 정전 등 전력 위기에서 타 업종 대비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보됐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W 이하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이다. 제도 가입 고객들은 부하 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전력 차단 지속시간이 10분 가량으로 짧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또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계약기간 내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9만84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감축기준용량을 기준으로 연 1회 1kW 당 1320원의 운영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대용량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사업장들이 추가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사업장 별 안전성,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전력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추석 성수품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6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aT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aT가 관리하고 있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등 성수품의 수급 전망 및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이달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시 정부비축물량 방출, 민간 보유 약정물량 방출 유도 등을 통해 추석 기간 수급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aT는 추석 기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경로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급사면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유도로 농

추석성수품 물가점검 및 수급안정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현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할인사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aT가 관리하고 있는 추석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민들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